

전시명 : **Urban collection**

전시기간 : **2019. 6. 27(목) – 7. 27(토)**

오프닝 : 2019. 6. 27 (목) 오후 5 시

전시장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99

관람시간: 화, 목~토 | 오후 2~7 시 | 그 외 사전 예약

문의 : 02-3417-0900

참여 작가: 존원, 지알원, 라들라스, 닉 워커, 파비앙 베르쉐르, 카트린 프리드릭스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이 준비한 두 번째 전시는 ‘**Urban collection**’이다. 뜨거워지는 서울의 여름을 맞이하며 도심의 뜨거운 태양같이 강렬한 컬러로 이루어진 작품과 더불어 시원한 그늘 같은 색감의 그림을 함께 준비하였다.

뉴욕 할렘 길거리에서 그래피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트리트 아트 출신 작가 존원의 캔버스 작업을 선보인다. 아크릴물감, 잉크, 수채화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존원의 새로운 캔버스 작품은 열정적인 색채표현 방식을 통해 대도시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더욱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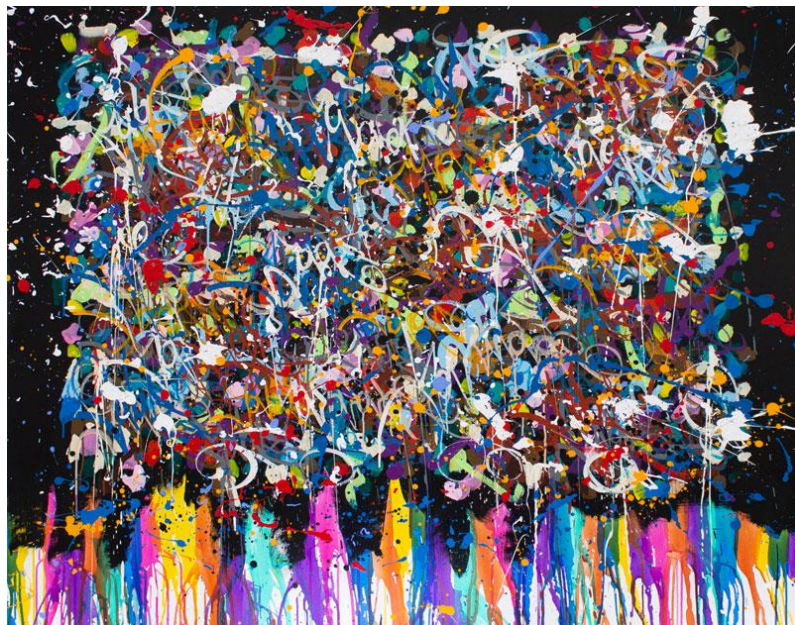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 출신 그래피티 작가 지알원은 흑백 풍경의 서울을 비롯하여 폭 넓은 스트리트 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화려한 네온사인과 깨끗한 거리로 인식된 도시인 서울의 모습이 아닌 공터와 작은 골목에서 시작하는 지알원의 그래피티 작업은 관람객들에게 다른 시선의 서울 풍경을 보여준다.

작가의 상상속에서 탄생해온 다양한 아이콘들을 화폭에 채워가며 그림을 완성해 온 파비앙 베르쉐르는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선보인다. 베르쉐르 작품에 등장했던 아이콘들이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 화면에 등장하는 이번 작품은 여러 개의 작은 그림들이 모여 다시 하나의 큰 화폭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전하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저항정신을 상징하는 ‘반달(Vandal)’ 아이콘으로 유명한 닉 워커는 새로운 인물을 작품에 등장시켰는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는 유명인의 시상식 장면을 유쾌하게 풍자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캘리그래피에서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작업을 하는 라틀라스, 에너제틱한 표현을 화폭에 펼치는 카트린 프리드릭스의 다양한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은 ‘Urban collection’ 전시를 구상하며 지알원 작가가 펼치는 특별 퍼포먼스(2019. 7. 6(토))를 함께 준비하였다.



존원, *Le Chien*, 2019, 캔버스에 아크릴, 120 x 150 cm



지알원, *Seoulscape* 마포구 와우산로 166, 2018,
캔버스에 아크릴, 스프레이, 130,3 x 193,9 cm



닉 워커, *Tonight's Grand Prize*, 2017, 캔버스에 스프레이, 61 x 76,5 cm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Brugier Rigail Gallery – Seoul)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99

관람시간: 화, 목~토요일 | 오후 2~7시 | 그 외 사전 예약

T. 02-3417-0900 | E. seoul@galerie-brugier-rigail.com | www.galerie-brugier-rigail.com